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1호 [루게 제24359호] 주제102(2013)년 11월 7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게재, 단행본으로 출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 코피 마스터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로씨야 연해변각 나호트까지

까게우에 《예가야》 연해변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주신 담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라!》의 상세한 요지를 10월 8일 메히코주체사상연구소가 불매전에 게재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에 중국, 네팔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성호동무가 사업하는 선박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중국 인터넷홈페이지 보도는 호렐과 초, 중급주류 휴식장을 돌아보시었으며 완공된 여러 스키주로도 보아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마식령스키장물 세상에 둘도 없는 스키장으로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지방예산제 실시 40돐 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지방예산제 실시 40돐 기념 중앙보고회가 6일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 동지 따라 민방에 빛내자!》, 《당의 지방 예산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방 살림살이를 제 힘으로 꾸려나가자!》 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 《복은 일심단결의 나라》

남조선인민들이 격찬

조선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빛내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남조선인민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동경하며 찬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연구소》의 연구원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피력하였다.

어제 오늘도 이북민중이 가장 자긍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단결의 력사를 창조하고 그 위력을 힘있게 펼쳐온 것에 대한 자긍이다.

하나의 중심, 혁명적진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령도자와 민중이 일심단결을 이루고있는 것이 복의 함의수이다.

단결은 나라의 발전과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인 하나라고 볼 수 없다. 령도자와 민중의 단결이 얼마나 공고한가를 보면 그 나라의 전도를 예측할 수 있다. 단결된 나라는 결코 붕괴되지 않으며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 수 없다. 일심단결은 복의 불패의 원천이다.

참으로 복은 일심단결의 초석 위에 굳건히 서있는 강국이다. 복은 일심단결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주체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단 력사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대전의 한 력사학교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단결이자 민족번영의 열쇠이고 사회발전의 추동력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해방직후 힘있는 사람은 힘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새 민주조국을 일떠세우자는 력사적인 호소로 전제 민중을 건국위업으로 불러일으키시었다.

지금 세계에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풍부한 자원으로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나라도 있고 발전된 경제력으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과 믿음의 정치를 펼쳐 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될 수 있다. 복은 단결로 부흥하는 나라이다.

이북바로알기회 회장은 부산에서 진행된 시국강연에서 이렇게 토론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치시었다. 그 사랑과 믿음은 민중의 힘의 원동력으로 되었고 제국주의자들이 복을 붕괴시키겠다고 사면발방에서 달려드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일심단결 하여 강성부흥의 길을 열어제낄 수 있게 하였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지배적목적을 위해 분별리간 술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민족간, 종족간 분쟁이 계속되고 비극적사태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현실은 단결이 필수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정 복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최강의 무기이다.

자주연구학회 회원은 한 모임에서 모든 민중이 뜻과 지향을 같이하고 오고가는 뜨거운 혈연의 정은 복의 불패성의 원천이다. 령도자는 민중을 믿고 민중은 령도자를 믿고 따르게 복은 전대미문의 시련이 막아나서도 곧바로 힘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다고 격정을 터치었다.

명도자는 민중을 위하여 불변 불류의 로고를 바치고 민중은 명도자의 의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것이야말로 이북특유의 방식이다.

이북처럼 명도자와 민중이 강국건설을 함께 하는 일심단결의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 복은 민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승리적으로 전진

하고 있다.

인권의 한 언론인은 토론회에서 복에서는 무상치로제, 무료 의료교육제를 비롯한 우월한 시책들이 끊임없이 실시되고 있다. 정녕 민중을 사랑해주는 나라, 민중에 대한 사생활과 헌신의 정신이 차넘치는 나라가 바로 이북이다. 민중을 위한 참다운 정치가 실시되는 나라는 민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마련이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민중이 있기에 복은 영원히 필승불패할 것이라고 심금을 터 놓았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제도를 연구하는 교수는 강의에서 지금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복은 일심단결의 나라》, 《명도자와 민중이 일심단결을 이룬 복은 불패의 강국》, 《일심단결은 복의 국력증진의 제 일국력》이라는 찬란한 글들이 계속 오르고 있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일심단결의 사상을 그대로 계속해나가는 김정은최고명도자의 정치철학도 단결의 철학이다. 이북의 일심단결의 화폭에서 세계는 보다 강위력하고 부강번영할 복의 매일을 보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선군령장의 품속에서 빛나는 영생의 삶

전투임무수행중 장렬하게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용사들에게 국가표창과 애국렬사증, 조선로동당 당원증 수여

【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백전백승의 선군혁명명도사에 천만군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또 하나의 전설이 새겨졌다.

혁명적도덕의리와 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대해같은 사랑의 품속에서 조국의 바다를

지켜 장렬하게 희생된 해군용사들이 영생의 삶을 빛내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 조선인민군 해군 제 790

군부대 주잠함 233호 지휘관들과 해병들은 마지막순간까지 조소를 굳건히 지키며 전투임무를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명명정정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민중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리영길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병들,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전투정치훈련과 맡겨진 혁명업수행에서 모범이었으며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군관, 군인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이 수여되었다.

용사들의 유가족들에게 애국렬사증이 수여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정면 고향과 부모처자를 뒤에 두고 조국을 위해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친 용사들의 애국의 넓과 혁명정신을 영원히 빛내어주시기 위해 용사들의 묘를 훌륭히 건립하도록 해주셨으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덕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용사들의 묘를 찾오시고 그들이 묵묵히 지켜낸 조국의 바다를 언제나 바라볼수 있게 된데 대하여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친히 용사들의 묘주가 되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의 위훈과 고귀한 정신세계를 전군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었다.

이 세상 비길데 없는 정과 열로 혼연일체의 새로운 경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와 따뜻한 사랑이 있어 용사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축복속에 영생하는 가장 고귀한 삶의 절정에 오르게 되었다.

전투임무수행중 희생된 용사들에 대한 국가표창과 애국렬사증,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수여하는 모임이 5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봉태동지, 조선인

민중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리영길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병들,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 앞서 전투임무수행중 장렬하게 희생된 용사들을 추모하는 의식이 있었다.

용사들의 묘앞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명예위령대가 정렬해 있었다.

추도곡이 연주되고 애도사가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희생된 용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으며 조율이 발생되었다.

화환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용사들의 묘앞에 진정되었다.

화환의 명기에는 《희생된 용사들을 추모하여》라는 글말이 쓰여 있었다.

인민무력부와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명의 로된 화환들이 묘앞에 진정되었다.

의식에서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군관 리문섭, 유가족들을 대표하여 정금순이 발언하였다.

참가자들은 용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묘를 돌아보았다.

이어 수여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군관, 군인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최봉태동지가 전달하였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우려나가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방예산제를 실시함에 대한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신 40돐을 기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방예산에 관한 주체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또한 성스러운 복부의 길에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우리 당의 참다운 전사들이 해군용사들에게 조선로동당 당원증이 수여되었다.

모임에서는 군관 한순준, 군관이었던 원영일의 아내 박정숙, 사관이었던 김성진의 어머니 주선화가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부대인의 전체 장병들과 유가족들은 떠나간 혁명전사들에게 건군사에 일찌기 없었던 전설같은 사랑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름없는 흠모와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동지들을 우리 당의 충신들이라고 하시면서 용사들을 당과 조국, 인민들과 전우들의 추억속에 영생하도록 시대와 혁명앞에 높이 내세워주시는데 대하여 감격에 넘쳐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가없이 펼쳐진 바다는 끝이 있어도 혁명전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과 의리에는 끝이 없다고 하면서 전정 우리 원수님의 품은 천만장병들이 안겨줄 영원한 삶의 품이라고 강조하였다.

용사들의 넋을 이어 선군조선의 운명이 시고 미래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결사옹위의 한길에서 불발은 모르는 이리가 되고 폭파가 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만능지휘관, 만능해병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희생된 용사들의 몸까지 합쳐 침략의 무리들을 바다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릴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생전에 남기지 바라던대로 최고사령관의 작식대원단에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자식들을 총대병사로 훌륭히 키워 아버지자였던 조국의 바다초소를 굳건히 수호해나간다고 자랑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시기에 조국을 위해 바친 혁명전사들의 생은 영생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받아안은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 거창한 전변을 안아오는 비범한 령도

태양의 촉박이 온 강산에 넘쳐 흐르는 내 나라, 내 조국,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우승리를 향하여 기세차게 전진하고있다.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비약의 기운이 태동하고 인민경제 기초공업부문, 선형부문에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어 대기념비적건축물들과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도처에 솟아나는 전변의 기상...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는 얼마나 빨라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심과 기세는 또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가.

불과 몇달도 안되는 사이에 세상에 소리치며 자랑할만 한 하나의 거리가 일떠서고 하나의 지구가 천지개벽하였다. 이러한 소식들이 날에 날다 들려오는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하나의 목표를 밝혀주시어도 최상의 수준에서 제시하시고 특출한 조직적 수완과 무비의 실천력을 경애하는 전진속도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지금 세계를 진감시키고있다.

위대한 령도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한 민족의 위대성은 그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고 한 인민의 미래는 그 수령의 현명성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은 조국의 강성부흥과 인민의 리상이 실현될 앞날을 내다보시며 최상의 목표와 용대한 설계도를 제시하시는 천리해안의 예지이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문명경도와 발전추세를 환히 꿰뚫고 세계에 앞서나가는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통해 크게 일떠세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

세계는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것이다.  
주제 101(2012)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통라인민유원지 물놀이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도약대나 물이끄러대만이 아니라 도 요소까지 세계적수준에 이르고 어떤 부분들은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만 같은 최상급의 물놀이장을 돌아보며 일군들은 감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물놀이수조를 비롯한 각종 시설들을 돌아보며 탄복하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진짜 세계적으로 앞서나갈수 있게 똑바로 하여야 한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던 세계적적인 수준의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형식만 세제적인 수준에 이르게 할것이 아니라 내용도 세계적적인 수준에 올라서게 하는것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새기며 일군들은 인민들에게 최상의 것을 안겨주시려는 원수님의 창조적 재능을 찬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 창조적 세계에는 무변광대한 지식의 바다도 있고 새것을 끊임없이 도출해내는 예지의 샘도 있으며 어떤 불가능도 모르는 만능의 설계도도 있는 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안겨줄 모든 건축물들을 세제적인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면서 이런 물놀이장을 앞으로 더 많이 건설해주어야 한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민들은 최상의것을 누려야 한다는

절대불변의 좌우명,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련해주시려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는 드림없는 의지에서 빛발쳐나오는 그 예지에 의하여 창조된 통라인민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아와빙상장, 해담화환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고, 통라도 일대가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천지개벽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서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면서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현신의 세계에서 또 어떤 위대한 창조물들이 설계되고있는지 다는 모르고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21세기 사회주의문명개화기의 상징으로 되는 최상의 창조물들을 끊임없이 안겨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고 목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서도, 별들도 조오는 한발중에도 나라의 강성부흥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발하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오시었다. 시대를 뛰어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예지의 세계에서 인민성과 사대성, 매 부분들과 요소들이 그 어느 나라이셔도 찾아볼수 없는 으뜸가는 문수물놀이장과 문화과학자리,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수십개의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설계되게 되었다.

불과 9개월만에 인민사랑의 정화로 일떠선 문수물놀이장 하나에만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재능과 얼마나 뜨겁게 애정을 쏟았는지

찾으며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러까지 하나하나 완성해주시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과 비상한 창조적안목에 의하여 또 하나의 세계적 인민인의 문화유산이 솟아나게 되었다.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몇달도 안되는 기간에 도처에 일떠선 인민사랑의 창조물들도 우리 조국이 세계에 앞서나가고 우리 인민이 으뜸가는 사회주의문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창조적 열정이 빛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애국애민과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최상의 목표와 과학적인 설계도를 제시하시며 실현에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과학과 교육, 보건과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례를 뛰어넘으며 힘차게 도약하고있으며 이 땅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가 찬란히 펼쳐지고있다.

현속적인 타격전, 립체적인 공격방식으로 강성부흥의 전진속도를 펼쳐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있다.

전투에서나 건설에서나 일단 시작한다는 최상의 속도와 성과를 보장하면서 단숨에 해체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가치를 들고나갈 때 경제건설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무한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에서는 최첨단과학기술도, 막대한 국가경제력도, 인민이 바라는 모든것도 다 나온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이러한 위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일단 시작한다는 최단기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끝내며 주타격방향을 틀어쥐고 강성국가건설전진속도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풍모이다.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전당, 전군, 전국을 하나와 같이 움직이시며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격력은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강성부흥을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을 위한 문명개화기를 펼치는 데서도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립장이었다.

주제 101(2012)년 9월 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양일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철저히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우리 공장, 우리 나라에 흔한 석탄을 가스화하여 탈일소성을 하고있는 명실공히 우리의 탈일공장이라는 보고를 들으시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의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앞으로 개별적단위로는 질책을 하더라도 많이 생산해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연예인가는 세로평판개간전투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며 이 사업에 군대와 사회를 총동원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어느날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수님,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군민대단결에 기초하여 사회에 대고조의 불길들을 계속 고조시켜나갈수 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방식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어떤 대규모의 작전도 우리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펼쳐지고 인민군대를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는 군민협동작전과 대담하고 현속적인 공격전으로 어떤 목표도 단숨에 점령하게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적신념과 문수물놀이장에 의하여 우리 조국땅에는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은 무한대의 정열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천만군민을 앞장서서 이끄시며 백승을 펼쳐시는 완벽한 실천력이다.

령도자의 정열은 혁명의 추진력이자, 령도자의 정열에 의하여 혁명의 전진속도가 좌우되고 강성부흥의 높이가 결정된다.

우리는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지난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자신께서 맨 앞장에서 판결해야 한다고, 그래서 장군님처럼 처에서 속속하면서 현지지도하셨다고, 이제는 펼쳐서야 속속하게 하기에 슬펐다고 하신 말씀하시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초강도강행군을 단행하시였으며 현지지도하신 단위는 공식보도된것만 하여도 60여개가 넘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천만군민의 대진군을 앞장서서 이끄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애국헌신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할수 없다.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그 진척정형을 총화해주시고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해주시며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방식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시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진군속을 최대로 높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분도 우리 원수님이다.

세한 폭우속에서 류경구강병원건설과 옥류아동병원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고 계신듯 한 무더위속에서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과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편이여 찾으시며 끝없는 로고와 실험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던가.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하나의 대강건설에도, 한번의 계속경계에도 자신의 정과 열을 다 쏟으시며 주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더 높은 목표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은 력사에 전무무한것이다.

은 나래에 천지개벽을 안아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자신께서 앞장서서 세상에 앞서나가는 사회주의문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온넉과 심장으로 가꾸시어 풍성한 유훈을 자신께서 맨 앞장에서 판결해야 한다고, 그래서 장군님처럼 처에서 속속하면서 현지지도하셨다고, 이제는 펼쳐서야 속속하게 하기에 슬펐다고 하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승의 실천력에 의하여 우리의 상봉을 단 절충은 제물들이 나타나고 사회주의건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사회주의건설이 꽃피어 펼쳐지고있으며 은 나래에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그 무한대의 열정의 세계를 열원으로 하여 우리 조국이 평화의 성서로 온 세상에 존엄받치고 있으며 새로운 대진군속도를 창조하며 날에날다 강성국가에로 힘차게 비약하고있다.

위대한 이상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길을 밝히시고 특출한 령도력으로 강성부흥의 새로운 전진속도를 펼쳐나가는 최초의 령도예술가를 높이 모시고있기에 김정은시대는 인민의 모든 리상과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시대로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정 선 철

《한 민족의 위대성은 그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고 한 인민의 미래는 그 수령의 현명성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은 조국의 강성부흥과 인민의 리상이 실현될 앞날을 내다보시며 최상의 목표와 용대한 설계도를 제시하시는 천리해안의 예지이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문명경도와 발전추세를 환히 꿰뚫고 세계에 앞서나가는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통해 크게 일떠세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

세계는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것이다.  
주제 101(2012)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통라인민유원지 물놀이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도약대나 물이끄러대만이 아니라 도 요소까지 세계적수준에 이르고 어떤 부분들은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만 같은 최상급의 물놀이장을 돌아보며 일군들은 감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물놀이수조를 비롯한 각종 시설들을 돌아보며 탄복하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진짜 세계적으로 앞서나갈수 있게 똑바로 하여야 한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던 세계적적인 수준의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형식만 세제적인 수준에 이르게 할것이 아니라 내용도 세계적적인 수준에 올라서게 하는것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새기며 일군들은 인민들에게 최상의 것을 안겨주시려는 원수님의 창조적 재능을 찬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 창조적 세계에는 무변광대한 지식의 바다도 있고 새것을 끊임없이 도출해내는 예지의 샘도 있으며 어떤 불가능도 모르는 만능의 설계도도 있는 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안겨줄 모든 건축물들을 세제적인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면서 이런 물놀이장을 앞으로 더 많이 건설해주어야 한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민들은 최상의것을 누려야 한다는

절대불변의 좌우명,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련해주시려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는 드림없는 의지에서 빛발쳐나오는 그 예지에 의하여 창조된 통라인민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아와빙상장, 해담화환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고, 통라도 일대가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천지개벽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서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면서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현신의 세계에서 또 어떤 위대한 창조물들이 설계되고있는지 다는 모르고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21세기 사회주의문명개화기의 상징으로 되는 최상의 창조물들을 끊임없이 안겨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고 목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서도, 별들도 조오는 한발중에도 나라의 강성부흥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발하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오시었다. 시대를 뛰어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예지의 세계에서 인민성과 사대성, 매 부분들과 요소들이 그 어느 나라이셔도 찾아볼수 없는 으뜸가는 문수물놀이장과 문화과학자리,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수십개의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설계되게 되었다.

불과 9개월만에 인민사랑의 정화로 일떠선 문수물놀이장 하나에만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재능과 얼마나 뜨겁게 애정을 쏟았는지

찾으며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러까지 하나하나 완성해주시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과 비상한 창조적안목에 의하여 또 하나의 세계적 인민인의 문화유산이 솟아나게 되었다.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몇달도 안되는 기간에 도처에 일떠선 인민사랑의 창조물들도 우리 조국이 세계에 앞서나가고 우리 인민이 으뜸가는 사회주의문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창조적 열정이 빛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애국애민과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최상의 목표와 과학적인 설계도를 제시하시며 실현에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과학과 교육, 보건과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례를 뛰어넘으며 힘차게 도약하고있으며 이 땅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가 찬란히 펼쳐지고있다.

현속적인 타격전, 립체적인 공격방식으로 강성부흥의 전진속도를 펼쳐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있다.

전투에서나 건설에서나 일단 시작한다는 최상의 속도와 성과를 보장하면서 단숨에 해체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가치를 들고나갈 때 경제건설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무한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에서는 최첨단과학기술도, 막대한 국가경제력도, 인민이 바라는 모든것도 다 나온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이러한 위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일단 시작한다는 최단기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끝내며 주타격방향을 틀어쥐고 강성국가건설전진속도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풍모이다.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전당, 전군, 전국을 하나와 같이 움직이시며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격력은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강성부흥을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을 위한 문명개화기를 펼치는 데서도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립장이었다.

주제 101(2012)년 9월 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양일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철저히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우리 공장, 우리 나라에 흔한 석탄을 가스화하여 탈일소성을 하고있는 명실공히 우리의 탈일공장이라는 보고를 들으시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의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앞으로 개별적단위로는 질책을 하더라도 많이 생산해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연예인가는 세로평판개간전투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며 이 사업에 군대와 사회를 총동원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어느날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수님,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군민대단결에 기초하여 사회에 대고조의 불길들을 계속 고조시켜나갈수 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방식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어떤 대규모의 작전도 우리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펼쳐지고 인민군대를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는 군민협동작전과 대담하고 현속적인 공격전으로 어떤 목표도 단숨에 점령하게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적신념과 문수물놀이장에 의하여 우리 조국땅에는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은 무한대의 정열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천만군민을 앞장서서 이끄시며 백승을 펼쳐시는 완벽한 실천력이다.

령도자의 정열은 혁명의 추진력이자, 령도자의 정열에 의하여 혁명의 전진속도가 좌우되고 강성부흥의 높이가 결정된다.

우리는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지난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자신께서 맨 앞장에서 판결해야 한다고, 그래서 장군님처럼 처에서 속속하면서 현지지도하셨다고, 이제는 펼쳐서야 속속하게 하기에 슬펐다고 하신 말씀하시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초강도강행군을 단행하시였으며 현지지도하신 단위는 공식보도된것만 하여도 60여개가 넘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천만군민의 대진군을 앞장서서 이끄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애국헌신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할수 없다.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그 진척정형을 총화해주시고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해주시며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방식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시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진군속을 최대로 높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분도 우리 원수님이다.

세한 폭우속에서 류경구강병원건설과 옥류아동병원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고 계신듯 한 무더위속에서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과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편이여 찾으시며 끝없는 로고와 실험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던가.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하나의 대강건설에도, 한번의 계속경계에도 자신의 정과 열을 다 쏟으시며 주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더 높은 목표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은 력사에 전무무한것이다.

은 나래에 천지개벽을 안아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자신께서 앞장서서 세상에 앞서나가는 사회주의문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온넉과 심장으로 가꾸시어 풍성한 유훈을 자신께서 맨 앞장에서 판결해야 한다고, 그래서 장군님처럼 처에서 속속하면서 현지지도하셨다고, 이제는 펼쳐서야 속속하게 하기에 슬펐다고 하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승의 실천력에 의하여 우리의 상봉을 단 절충은 제물들이 나타나고 사회주의건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사회주의건설이 꽃피어 펼쳐지고있으며 은 나래에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그 무한대의 열정의 세계를 열원으로 하여 우리 조국이 평화의 성서로 온 세상에 존엄받치고 있으며 새로운 대진군속도를 창조하며 날에날다 강성국가에로 힘차게 비약하고있다.

위대한 이상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길을 밝히시고 특출한 령도력으로 강성부흥의 새로운 전진속도를 펼쳐나가는 최초의 령도예술가를 높이 모시고있기에 김정은시대는 인민의 모든 리상과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시대로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정 선 철

《한 민족의 위대성은 그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고 한 인민의 미래는 그 수령의 현명성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은 조국의 강성부흥과 인민의 리상이 실현될 앞날을 내다보시며 최상의 목표와 용대한 설계도를 제시하시는 천리해안의 예지이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문명경도와 발전추세를 환히 꿰뚫고 세계에 앞서나가는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통해 크게 일떠세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

세계는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것이다.  
주제 101(2012)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통라인민유원지 물놀이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도약대나 물이끄러대만이 아니라 도 요소까지 세계적수준에 이르고 어떤 부분들은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만 같은 최상급의 물놀이장을 돌아보며 일군들은 감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물놀이수조를 비롯한 각종 시설들을 돌아보며 탄복하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진짜 세계적으로 앞서나갈수 있게 똑바로 하여야 한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던 세계적적인 수준의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형식만 세제적인 수준에 이르게 할것이 아니라 내용도 세계적적인 수준에 올라서게 하는것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새기며 일군들은 인민들에게 최상의 것을 안겨주시려는 원수님의 창조적 재능을 찬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 창조적 세계에는 무변광대한 지식의 바다도 있고 새것을 끊임없이 도출해내는 예지의 샘도 있으며 어떤 불가능도 모르는 만능의 설계도도 있는 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안겨줄 모든 건축물들을 세제적인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면서 이런 물놀이장을 앞으로 더 많이 건설해주어야 한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민들은 최상의것을 누려야 한다는

절대불변의 좌우명,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련해주시려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는 드림없는 의지에서 빛발쳐나오는 그 예지에 의하여 창조된 통라인민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아와빙상장, 해담화환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고, 통라도 일대가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천지개벽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서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면서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현신의 세계에서 또 어떤 위대한 창조물들이 설계되고있는지 다는 모르고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21세기 사회주의문명개화기의 상징으로 되는 최상의 창조물들을 끊임없이 안겨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고 목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서도, 별들도 조오는 한발중에도 나라의 강성부흥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발하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오시었다. 시대를 뛰어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예지의 세계에서 인민성과 사대성, 매 부분들과 요소들이 그 어느 나라이셔도 찾아볼수 없는 으뜸가는 문수물놀이장과 문화과학자리,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수십개의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설계되게 되었다.

불과 9개월만에 인민사랑의 정화로 일떠선 문수물놀이장 하나에만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재능과 얼마나 뜨겁게 애정을 쏟았는지

찾으며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러까지 하나하나 완성해주시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과 비상한 창조적안목에 의하여 또 하나의 세계적 인민인의 문화유산이 솟아나게 되었다.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몇달도 안되는 기간에 도처에 일떠선 인민사랑의 창조물들도 우리 조국이 세계에 앞서나가고 우리 인민이 으뜸가는 사회주의문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창조적 열정이 빛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애국애민과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최상의 목표와 과학적인 설계도를 제시하시며 실현에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과학과 교육, 보건과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례를 뛰어넘으며 힘차게 도약하고있으며 이 땅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가 찬란히 펼쳐지고있다.

현속적인 타격전, 립체적인 공격방식으로 강성부흥의 전진속도를 펼쳐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있다.

전투에서나 건설에서나 일단 시작한다는 최상의 속도와 성과를 보장하면서 단숨에 해체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가치를 들고나갈 때 경제건설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무한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에서는 최첨단과학기술도, 막대한 국가경제력도, 인민이 바라는 모든것도 다 나온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이러한 위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일단 시작한다는 최단기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끝내며 주타격방향을 틀어쥐고 강성국가건설전진속도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풍모이다.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전당, 전군, 전국을 하나와 같이 움직이시며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격력은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강성부흥을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을 위한 문명개화기를 펼치는 데서도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립장이었다.

주제 101(2012)년 9월 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양일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철저히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우리 공장, 우리 나라에 흔한 석탄을 가스화하여 탈일소성을 하고있는 명실공히 우리의 탈일공장이라는 보고를 들으시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의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앞으로 개별적단위로는 질책을 하더라도 많이 생산해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연예인가는 세로평판개간전투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며 이 사업에 군대와 사회를 총동원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어느날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수님,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군민대단결에 기초하여 사회에 대고조의 불길들을 계속 고조시켜나갈수 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방식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어떤 대규모의 작전도 우리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펼쳐지고 인민군대를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는 군민협동작전과 대담하고 현속적인 공격전으로 어떤 목표도 단숨에 점령하게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적신념과 문수물놀이장에 의하여 우리 조국땅에는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은 무한대의 정열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천만군민을 앞장서서 이끄시며 백승을 펼쳐시는 완벽한 실천력이다.

령도자의 정열은 혁명의 추진력이자, 령도자의 정열에 의하여 혁명의 전진속도가 좌우되고 강성부흥의 높이가 결정된다.

우리는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지난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자신께서 맨 앞장에서 판결해야 한다고, 그래서 장군님처럼 처에서 속속하면서 현지지도하셨다고, 이제는 펼쳐서야 속속하게 하기에 슬펐다고 하신 말씀하시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초강도강행군을 단행하시였으며 현지지도하신 단위는 공식보도된것만 하여도 60여개가 넘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천만군민의 대진군을 앞장서서 이끄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애국헌신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할수 없다.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그 진척정형을 총화해주시고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해주시며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방식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시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진군속을 최대로 높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분도 우리 원수님이다.

세한 폭우속에서 류경구강병원건설과 옥류아동병원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고 계신듯 한 무더위속에서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과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편이여 찾으시며 끝없는 로고와 실험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던가.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하나의 대강건설에도, 한번의 계속경계에도 자신의 정과 열을 다 쏟으시며 주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더 높은 목표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예술은 력사에 전무무한것이다.

은 나래에 천지개벽을 안아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자신께서 앞장서서 세상에 앞서나가는 사회주의문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온넉과 심장으로 가꾸시어 풍성한 유훈을 자신께서 맨 앞장에서 판결해야 한다고, 그래서 장군님처럼 처에서 속속하면서 현지지도하셨다고, 이제는 펼쳐서야 속속하게 하기에 슬펐다고 하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승의 실천력에 의하여 우리의 상봉을 단 절충은 제물들이 나타나고 사회주의건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사회주의건설이 꽃피어 펼쳐지고있으며 은 나래에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그 무한대의 열정의 세계를 열원으로 하여 우리 조국이 평화의 성서로 온 세상에 존엄받치고 있으며 새로운 대진군속도를 창조하며 날에날다 강성국가에로 힘차게 비약하고있다.

위대한 이상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길을 밝히시고 특출한 령도력으로 강성부흥의 새로운 전진속도를 펼쳐나가는 최초의 령도예술가를 높이 모시고있기에 김정은시대는 인민의 모든 리상과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시대로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정 선 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오스트랄리아련방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윌리엄 파터슨 추조 오스트랄리아련방 특명전권대사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스트랄리아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스트랄리아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 친히 맛보신 두부

연예인가 어머니수령님께서 황해북도 현지지도하시던 때에 있는 일이다.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도내인민들의 식생활을 리해하시기 위하여 한 일군에게 사리현지의 식료상점에 가서 두부를 몇모 사오도록 하시었다.

일군은 어머니수령님으로부터 뜻밖의 과업을 받고 잠시 망설이였으나 수령님께서 거듭 당부하시였어야 식료상점에 나가 두부를 사오게 되었다.

일군이 가져온 냄비안에는 거무스레한 두부가 여러모 놓여있었다.

거무스레한 두부를 보시는 어머니수령님의 안광에는 심중한 빛이 어리시었다.

두부의 색깔이 거무스레한 사연을 일군이 설명해드리자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같은 값이면 왜 두부를 거머들고 만드는데가 하고 하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두부를 하얗게, 더 먹음직스럽게 만들수 있지 않다고 일군들을 나무라시었다.

일군들은 인민의 총복답게 일을 잘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여기 두부맛이 어떤지 맛을 보아야겠다고, 이 두부를 가져다 저녁에 두부장을 끓여라고 말씀하시었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안고

일군들이 이런 두부를 잡수실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이 먹는 두부를 내라고 왜 못 먹겠는가고, 일없다고, 가져다 끓여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날 저녁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거무스레한 두부장 한그릇을 다드시고 일군들에게 두부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어머니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마디에는 그이께서 바라시는 의도대로 일해나갈 결의가 충만되어있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는 어머니수령님의 다심하신 은정은 누구나 늘씬 늘씬 두부에도 이렇듯 뜨겁게 어려있었다.

일군들이 이런 두부를 잡수실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이 먹는 두부를 내라고 왜 못 먹겠는가고, 일없다고, 가져다 끓여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날 저녁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거무스레한 두부장 한그릇을 다드시고 일군들에게 두부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어머니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마디에는 그이께서 바라시는 의도대로 일해나갈 결의가 충만되어있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는 어머니수령님의 다심하신 은정은 누구나 늘씬 늘씬 두부에도 이렇듯 뜨겁게 어려있었다.

## 수첩에 적어넣으신 풀이름

주제 46(1957)년 5월 어느날이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이날 함경북도 경성군의 어느 한 협동농장을 찾으시었다.

자기들의 농장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끝없는 격정에 휩싸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허물없이 농장실내를 돌아보시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농민들과 이가기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이군장에서 흔한 풀을 리용하여 돼지 먹이로 쓰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흥미가 동하는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즉시 그 풀을 보라고 이르시었다.

잠시후 농장원이 두뿌리의 풀을 가져왔다.  
그가 올린 두뿌리의 풀을 한 이군에서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한 수첩 일군에게 무슨 풀인가고 물으시었다.

일군이 갑자기 모르겠다고 하자 농장원은 어머니수령님께 그 풀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드리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이 신생이라고, 그래서 인민들속에 자주 들어오게 된다고, 농촌에 학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풀이름을 몇번이고 불러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한동안 그 풀을 주의깊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수첩을 꺼내시며 귀중했군요, 이 풀이름을 적어두었다가 연구해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수첩에 그 풀이름을 큼직하게 적어넣으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며 내 조국의 풀 한포기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고 깊이 관심하시었다.

어머니수령님의 깊은 관심속에 이 풀이름은 그 풀은 후날 영양가 높은 돼지먹이로 널리 리용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립 정 호



## 최룡해총정치국장 마식령스키장건설정형 현지료해

【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마식령스키장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령이라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군민건설자들의 투쟁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식령스키장건설 완공의 날이 다가오고있다.

총정치국장은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판결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민건설자들을 고무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군민건설자들이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속도,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건설을 최단기간에 손색없이 끝낼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여러 대상건설과 함께 원림문화와 지대정리를 동시에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총정치국장은 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원만히 대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 군민협동작전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투쟁방식

경애하는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지방예산제 실시 4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 1번에서 계속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지방 예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며 지방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우리 식 예산제도이며 지방살림살이운영방식이다.

지방예산제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주권은 항상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지방살림살이를 운영해나가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직함이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방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키데 대하여》, 《지방예산제를 비롯해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에서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을 비롯한 지방예산제실시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원명하게 명도하시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데 대한 우리 당방침의 정당성》,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의 과학성과 독창성, 정당성을 논증하시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공부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시, 군에서 지방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자체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지방예산제실시와 관련한 본보기단위를 꾸리며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을뿐 아니라 지방예산제모범공정호쟁취운동

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주제99(2010)년 11월 창성군을 찾오시어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형석회의 50돐을 맞으며 군을 잘 꾸려 온 나라에 일반화하고 지방경제발전에서 다시한번 일대 비약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독창적인 지방예산제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혁명투쟁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지방예산제의 실현은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로작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전적로작 《혁명적의정서》의정신을 구현하여 모든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력원으로 일대세우자》를 발표하시오 군의 역할을 높여 살기 좋은 인민의 력원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시, 군들에서 공장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 있는 소비품을 생산하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밤을 일으며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군의 지위를 더욱 뚜렷이 밝혀주시고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시, 군들이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지방예산제방침이 관철되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토대가 꾸려지게 되었다.

오늘 지방예산수입은 1973년에 비하여 7.3배 성장하고 국가예산수입에서 지방예산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있다.

화평군을 비롯한 수십개 군(시, 구역)이 지방예산제모범군(시, 구역)호를 수여받고 해마다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대렬이 늘어나고있다.

많은 시, 군이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지방공업생산액비중을 60%이상 보장하고 상업, 금융, 편의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지방예산수입에서 봉사부분 수입비중을 높이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경제생산지지를 튼튼히 꾸리고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모든 시, 군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꾸려지고있으며 지방살림살이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지방예산제실시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지방예산제방침이 가져온 자랑한 결실이며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열매이다.

보고자는 전체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하는 데서 군을 강화하고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옵니다. 군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군을 더욱 튼튼히 밝혀주시고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시, 군들이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지방예산제방침이 관철되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토대가 꾸려지게 되었다.

오늘 지방예산수입은 1973년에 비하여 7.3배 성장하고 국가예산수입에서 지방예산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있다.

화평군을 비롯한 수십개 군(시, 구역)이 지방예산제모범군(시, 구역)호를 수여받고 해마다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대렬이 늘어나고있다.

많은 시, 군이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지방공업생산액비중을 60%이상 보장하고 상업, 금융, 편의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지방예산수입에서 봉사부분 수입비중을 높이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경제생산지지를 튼튼히 꾸리고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모든 시, 군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꾸려지고있으며 지방살림살이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지방예산제실시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지방예산제방침이 가져온 자랑한 결실이며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열매이다.

보고자는 전체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하는 데서 군을 강화하고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옵니다. 군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군을 더욱 튼튼히 밝혀주시고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시, 군들이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지방예산제방침이 관철되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토대가 꾸려지게 되었다.

오늘 지방예산수입은 1973년에 비하여 7.3배 성장하고 국가예산수입에서 지방예산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있다.

화평군을 비롯한 수십개 군(시, 구역)이 지방예산제모범군(시, 구역)호를 수여받고 해마다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대렬이 늘어나고있다.

많은 시, 군이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지방공업생산액비중을 60%이상 보장하고 상업, 금융, 편의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지방예산수입에서 봉사부분 수입비중을 높이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경제생산지지를 튼튼히 꾸리고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모든 시, 군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꾸려지고있으며 지방살림살이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지방예산제실시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지방예산제방침이 가져온 자랑한 결실이며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열매이다.

보고자는 전체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하는 데서 군을 강화하고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옵니다. 군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군을 더욱 튼튼히 밝혀주시고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시, 군들이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지방예산제방침이 관철되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토대가 꾸려지게 되었다.

오늘 지방예산수입은 1973년에 비하여 7.3배 성장하고 국가예산수입에서 지방예산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있다.

화평군을 비롯한 수십개 군(시, 구역)이 지방예산제모범군(시, 구역)호를 수여받고 해마다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대렬이 늘어나고있다.

많은 시, 군이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지방공업생산액비중을 60%이상 보장하고 상업, 금융, 편의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지방예산수입에서 봉사부분 수입비중을 높이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경제생산지지를 튼튼히 꾸리고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모든 시, 군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꾸려지고있으며 지방살림살이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지방예산제실시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지방예산제방침이 가져온 자랑한 결실이며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열매이다.

보고자는 전체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하는 데서 군을 강화하고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옵니다. 군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군을 더욱 튼튼히 밝혀주시고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시, 군들이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지방예산제방침이 관철되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토대가 꾸려지게 되었다.

오늘 지방예산수입은 1973년에 비하여 7.3배 성장하고 국가예산수입에서 지방예산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있다.

화평군을 비롯한 수십개 군(시, 구역)이 지방예산제모범군(시, 구역)호를 수여받고 해마다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대렬이 늘어나고있다.

많은 시, 군이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지방공업생산액비중을 60%이상 보장하고 상업, 금융, 편의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지방예산수입에서 봉사부분 수입비중을 높이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경제생산지지를 튼튼히 꾸리고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모든 시, 군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꾸려지고있으며 지방살림살이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지방예산제실시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지방예산제방침이 가져온 자랑한 결실이며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열매이다.

보고자는 전체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하는 데서 군을 강화하고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옵니다. 군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군을 더욱 튼튼히 밝혀주시고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시, 군들이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지방예산제방침이 관철되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토대가 꾸려지게 되었다.

오늘 지방예산수입은 1973년에 비하여 7.3배 성장하고 국가예산수입에서 지방예산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있다.

화평군을 비롯한 수십개 군(시, 구역)이 지방예산제모범군(시, 구역)호를 수여받고 해마다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대렬이 늘어나고있다.

많은 시, 군이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지방공업생산액비중을 60%이상 보장하고 상업, 금융, 편의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지방예산수입에서 봉사부분 수입비중을 높이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경제생산지지를 튼튼히 꾸리고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모든 시, 군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꾸려지고있으며 지방살림살이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지방예산제실시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지방예산제방침이 가져온 자랑한 결실이며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귀중한 열매이다.

보고자는 전체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하는 데서 군을 강화하고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옵니다. 군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 가을밀, 보리농사성과의 비결

### 철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철산군에서 가을밀, 보리농사에 큰 힘을 넣고있다. 원래 이 지방은 적산온도가 낮아 그전에 가을밀, 보리농사를 짓기 불리한 곳으로 인식되어있었다. 하지만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당의 두발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찰 일념을 안고 지난 여러해 동안 가을밀, 보리농사를 대대적으로 짓기 위해 노력하고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비결의 하나가 일군들이 실정에 맞는 방법을 받아들여 두발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한데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과 땅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두발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알뜰하고 끈기있게 하여야 합니다.》

가을밀, 보리농사에서 일군들이 취한 방법은 우선 지대적 특성에 맞게 씨뿌리기기구를 바로 정하는 것이었다.

가을밀, 보리는 씨앗을 적기에 뿌려야 겨울을 안전하게 날수 있다.

군의 기후조건에서 평균기온이 높은 지방들과 같은 시기에 씨뿌리기를 한다면 겨울나이에 필요한 생육상태를 보장할수 없었다. 때문에 일군들은 여러가지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그런 지방들보다 기일을 더 앞당겨 씨뿌리기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가을밀, 보리농사를 안전하게 지으면서 온공소출을 거둘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놓았다.

가을밀, 보리농사작업을 하면서 일군들이 중시한 문제는 또한 농작물의 겨울나이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실정에 맞게 찾아 실천하는 것이었다. 가을밀, 보리농사를 적극적으로 짓지만 바로 이 문제를 유해 해결하여야 했다.

일군들은 대중의 지혜를 발동시키고 과학기술적으로 잘 타산하면 얼마든지 방도를 찾을수 있다고 확신하고있다. 현지에 나가 농장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겨울철장수량도 분석해보면서 연구용 비료를 길어 보면 그들은 해당하는 방도를 찾아냈다.

그것은 가을밀, 보리전에 북대기 등을 띄우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흙을 등성등성 놓아주어 보온대책을 세우는 것이었다. 비록 단순한 방법이지만 처음 해보는 일인것만큼 일군들은 농장들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시험해볼을 하기로 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빈방을 일구어 여러개의 두둑을 지어놓았다. 여기에 가을밀, 보리씨를 뿌린 후 몇개의 두둑에는 보온재를 띄우고 다른데는 그렇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비시험을 해본 결과

명백하였다. 보온재를 띄운 포전에서 농작물들의 겨울나이가 훨씬 더 높았다. 수확고도 물론 높았다. 그후 일부 농장들에서 이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는데 결과는 좋았다. 앞고루로 밀, 보리를 갈아 심으니 봄에 심는것보다 씨불이 더 잘고 수확고도 높았을뿐 아니라 그 수확농사작업도 보장할수 있었다. 포전에 띄웠던 보온재로까지 겨울생장에 리용하니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신심을 가지고 이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기술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여기서 특히 관심되는 물결이 있었다. 농장들에서 봄에 가을밀, 보리포장에 띄운 보온재로 덮기하는 시기를 잘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시기선정을 잘하지 못하여 보온재를 너무 일찍 또는 늦게 벗기면 밀, 보리의 일이 상할수 있었다. 이것을 고려하여 온도가 제일 적당한 시기에 보온재를 벗기도록 하였다. 그때에도 완전히 벗기지 말고 잔북대기나 걸베는 그냥 놓아두게 하였다. 농작물이 봄에 가을 피해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이런 빈틈없는 기술지도사업은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하였다.

일군들은 이런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도 가을밀, 보리농사작업과 지위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 총동력전을 힘있게 벌려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 올해에 제남탄광이 또 한번 크게 수확하고있다.

시원하게 뻗어난 구내포장도로도 그렇고 새로 개건된 생산건물들과 현대미를 뽐내며 특색있게 일떠선 2층짜리 탄부물자공급소도 튼튼히 눈길을 끈다. 그러나 더욱 우리의 찬란한 자아는 최첨단과제전의 열풍으로 안이온 자랑한 열매이다.

대형현시판을 리용한 일생산 및 제정공시판과 로동정량 및 로력관리를 중심으로 한 종합업무자동화체계의 도입으로 현대화의 큰결실을 내리고 매달 8천여t의 석탄을 더 생산...

최첨단과제전의 열풍속에 나날이 찬란기의 활력을 되찾고있는 제남의 비약적인 발전면모는 우리에게 무엇을 새겨 주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은 세차게 지휘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로작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불과 몇년 안되는 사이에 이룩된 전진의 세 모습이었다.

3년전 12월,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군을 더욱 튼튼히 밝혀주시고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시, 군들이 지방살림살이와 인민생활향상을 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나가도록 하시였다.

백두산철세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지방예산제방침이 관철되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토대가 꾸려지게 되었다.

오늘 지방예산수입은 1973년에 비하여 7.3배 성장하고 국가예산수입에서 지방예산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있다.

화평군을 비롯한 수십개 군(시, 구역)이 지방예산제모범군(시, 구역)호를 수여받고 해마다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대렬이 늘어나고있다.

많은 시, 군이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지방공업생산액비중을 60%이상 보장하고 상업, 금융, 편의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지방예산수입에서 봉사부분 수입비중을 높이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경제생산지지를 튼튼히 꾸리고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모든 시, 군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꾸려지고있으며 지방살림살이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 비약의 롱마를 어떻게 닦는가

### 제남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목표를 내세운 탄광의 일군들 앞에는 두갈래의 길이 놓여있었다.

하나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에서 앞선 단원들이 걸은 길이었다고 다른 하나는 세계적발전추세와 자체실정에 맞게 새롭게 구상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말그대로 초행길이었다.

이러한 때 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최신기술자료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출현한 IP카메라에 깊은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아직은 한번도 IP카메라를 본적도 없었지만 컴퓨터망과 연결하여 사용할수 있는 영상감시장치로서의 높은 성능과 그 밝은 전망은 대변에 이들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탄광의 일군들은 기술갱신 추기가 대단히 짧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다른 탄광들과는 달리 정들이 20리안팎으로 산지사방 널려져있는 자체의 구체적조건을 고려하여 주저없이 두번째 방안을 선택하였다.

세계를 굽어보며 더 빨리 내달리자.

이런 야심만만한 배짱으로 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종전의 낡은 통신선로들을

모두 들어내고 빛섬유케블에 의한 컴퓨터망형성을 위한 정보통신하부구조구축을 첫째하는 사업으로 내세우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탄광정보실의 기술자들과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의 연구사들도 연구력량이 무어지고 IP카메라에 의한 현장원격감시 및 석탄생산량자동측정체제와 벨트콘베어운전지휘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도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리영철, 한학중동무를 비롯한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위발침은 기술자, 연구사들의 착상이 그대로 훌륭한 열매로 무르익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탄광의 정보실장 리영중동무가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실장 공영일동무와 함께 대형현시판제작에서 애를 먹고있던 영상분할기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곳 연구집단이 바쳐온 피나는 사투와 탐구의 나날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탄광에서는 IP카메라에 의한 현장원격감시 및 석탄생산량자동측정체제와 벨트콘베어운전지휘체제를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모두 들어내고 빛섬유케블에 의한 컴퓨터망형성을 위한 정보통신하부구조구축을 첫째하는 사업으로 내세우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탄광정보실의 기술자들과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의 연구사들도 연구력량이 무어지고 IP카메라에 의한 현장원격감시 및 석탄생산량자동측정체제와 벨트콘베어운전지휘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도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리영철, 한학중동무를 비롯한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위발침은 기술자, 연구사들의 착상이 그대로 훌륭한 열매로 무르익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탄광의 정보실장 리영중동무가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실장 공영일동무와 함께 대형현시판제작에서 애를 먹고있던 영상분할기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곳 연구집단이 바쳐온 피나는 사투와 탐구의 나날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탄광에서는 IP카메라에 의한 현장원격감시 및 석탄생산량자동측정체제와 벨트콘베어운전지휘체제를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모두 들어내고 빛섬유케블에 의한 컴퓨터망형성을 위한 정보통신하부구조구축을 첫째하는 사업으로 내세우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탄광정보실의 기술자들과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의 연구사들도 연구력량이 무어지고 IP카메라에 의한 현장원격감시 및 석탄생산량자동측정체제와 벨트콘베어운전지휘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도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리영철, 한학중동무를 비롯한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위발침은 기술자, 연구사들의 착상이 그대로 훌륭한 열매로 무르익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탄광의 정보실장 리영중동무가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실장 공영일동무와 함께 대형현시판제작에서 애를 먹고있던 영상분할기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곳 연구집단이 바쳐온 피나는 사투와 탐구의 나날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탄광에서는 IP카메라에 의한 현장원격감시 및 석탄생산량자동측정체제와 벨트콘베어운전지휘체제를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모두 들어내고 빛섬유케블에 의한 컴퓨터망형성을 위한 정보통신하부구조구축을 첫째하는 사업으로 내세우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탄광정보실의 기술자들과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의 연구사들도 연구력량이 무어지고 IP카메라에 의한 현장원격감시 및 석탄생산량자동측정체제와 벨트콘베어운전지휘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도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리영철, 한학중동무를 비롯한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위발침은 기술자, 연구사들의 착상이 그대로 훌륭한 열매로 무르익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 《마석경속도》 창조의 불길높이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로 아금공업발전의 활로를 열어간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

##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철의 기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적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며 현행계획과 전략적인 단계별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대로 완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철강재생산의 질적발전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성강의 그 어느 일터에 가나 해당 부문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모습이 보이고 생산자대중에서 창안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고있는 소식을 들을수 있었다.

세상에 없는 주철련장을 안아온 그때처럼 우리 식의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로 강종을 높이고 강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일으키고있는 미더운 성강의 로동계급이다.

이제 맞게 로동능력을 5t 더 높이기 위한 로동조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탈탄련공정을 보다 완성할수 있었으며 제강시간을 대폭 줄여 강철공업발전을 위한 방법으로써 하기 위한 기술개조전투가 진행될 때였다.

수리작업반장 최복봉동무와 설비관리원 최선호동무는 세계 아금공업기술문헌을 탐독하고 현장에서 하나의 작원원리를 갖이있게 파악하는 과정에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설비나비의 직경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압력분배를 해결할수 있는 새 기술을 창안하였다. 이것은 종전의 수직식 소바나취입을 수평식소바나취입으로 전환하여 제강과정에 발생하던 일련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제 맞게 로동능력을 5t 더 높이기 위한 로동조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탈탄련공정을 보다 완성할수 있었으며 제강시간을 대폭 줄여 강철공업발전을 위한 방법으로써 하기 위한 기술개조전투가 진행될 때였다.

수리작업반장 최복봉동무와 설비관리원 최선호동무는 세계 아금공업기술문헌을 탐독하고 현장에서 하나의 작원원리를 갖이있게 파악하는 과정에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설비나비의 직경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압력분배를 해결할수 있는 새 기술을 창안하였다. 이것은 종전의 수직식 소바나취입을 수평식소바나취입으로 전환하여 제강과정에 발생하던 일련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줄어든 제강시간**

생산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해나가기 위하여 예전엔 나날은 철저히 자기 힘을 믿고 전진해온 나날이었다.

세상에 없는 우리 식의 주철 강철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제강법으로 쇠물을 끓이는 정련직장 용해공들에게는 뜻하지 않게 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곤 하였다.

그때마다 이곳 용해공들이 심장으로 걸었던것은 새로운 제강법은 새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용해공들을 요구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지난날의 경험을 내걸고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생산의 주인으로서의 자질을 할수가 없었다. 그러하여 용해공들은 선진과학기술을 배우는 사업을 생산에 못지않게 중요한 전투로 여기고 현대

**새로운 비약의 발판을**

《이것이 아금공업발전에도 도움이 될는지 알겠습니까.》

이 말은 언제인가 산하단위 실장 오덕남동무가 연진을 재부선하여 고경탄소합금을 높이기 위한 고심하던 탐구의 날을 보던 때에 했던 말이다.

오덕남동무와 국가과학원 합동분원 과학자들이 연구사업을 협력하면서 매일같이 연진부선과정에 달려드는 팀의 성분을 적어나가던 때가 몇년전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협동연구는 끝내 성공하여 연진부선과정에 품위높은 흑연립자와 맞먹는 성분

이와 함께 북방의 철의 기지에 달려나온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대중들이 중요합금을 국산화할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기술문헌을 찾아 강철개성선투쟁으로 들끓는 성강로동계급의 승격을 더욱 높여주었다.

성강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렇게 창조와 혁신으로 아금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약의 발판을 다져가고있다.

하지만 이들은 만족을 모른다. 약동하는 내 조국의 하늘가를 총성의 불노를 더 붉게 물들이기 위하여 성강의 로동계급은 오늘도 요소를에서 기술적 내밀어온 련합기업소에서는

모두가 기술혁신의 명수

올해에 들어와 400여건의 기술혁신안 실현! 이것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전진의 기상떨치는 성강의 활력넘친 모습을 보여주는 자로의 하나이다.

기술경제적가치가 큰 이러한 기술혁신안들의 실현으로 철강재생산을 높이고 강질을 높일수 있는 불길기술적대가 보다 튼튼해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선진과학기술도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과학연구단위들과의 협동연구를 심화시키는 한편 대동적기술혁신운동이 활기를 띠도록 작전과 지도를 잘 하고있다.

이 과정에 공업기술연구소 내화물연구실의 시험기사를

**출어든 제강시간**

생산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해나가기 위하여 예전엔 나날은 철저히 자기 힘을 믿고 전진해온 나날이었다.

세상에 없는 우리 식의 주철 강철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제강법으로 쇠물을 끓이는 정련직장 용해공들에게는 뜻하지 않게 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곤 하였다.

그때마다 이곳 용해공들이 심장으로 걸었던것은 새로운 제강법은 새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용해공들을 요구하고있었다는 것이었다.

지난날의 경험을 내걸고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생산의 주인으로서의 자질을 할수가 없었다. 그러하여 용해공들은 선진과학기술을 배우는 사업을 생산에 못지않게 중요한 전투로 여기고 현대

**새로운 비약의 발판을**

《이것이 아금공업발전에도 도움이 될는지 알겠습니까.》

이 말은 언제인가 산하단위 실장 오덕남동무가 연진을 재부선하여 고경탄소합금을 높이기 위한 고심하던 탐구의 날을 보던 때에 했던 말이다.

오덕남동무와 국가과학원 합동분원 과학자들이 연구사업을 협력하면서 매일같이 연진부선과정에 달려드는 팀의 성분을 적어나가던 때가 몇년전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협동연구는 끝내 성공하여 연진부선과정에 품위높은 흑연립자와 맞먹는 성분

이와 함께 북방의 철의 기지에 달려나온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대중들이 중요합금을 국산화할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기술문헌을 찾아 강철개성선투쟁으로 들끓는 성강로동계급의 승격을 더욱 높여주었다.

성강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렇게 창조와 혁신으로 아금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약의 발판을 다져가고있다.

하지만 이들은 만족을 모른다. 약동하는 내 조국의 하늘가를 총성의 불노를 더 붉게 물들이기 위하여 성강의 로동계급은 오늘도 요소를에서 기술적 내밀어온 련합기업소에서는

모두가 기술혁신의 명수

올해에 들어와 400여건의 기술혁신안 실현! 이것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전진의 기상떨치는 성강의 활력넘친 모습을 보여주는 자로의 하나이다.

기술경제적가치가 큰 이러한 기술혁신안들의 실현으로 철강재생산을 높이고 강질을 높일수 있는 불길기술적대가 보다 튼튼해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선진과학기술도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과학연구단위들과의 협동연구를 심화시키는 한편 대동적기술혁신운동이 활기를 띠도록 작전과 지도를 잘 하고있다.

이 과정에 공업기술연구소 내화물연구실의 시험기사를

**약동하는 기상**

1 조강직장에서

우리 식의 기술로 가열로를 개조하던 나날에 밤을 새워가며 로그램작성법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던 이야기이며 진진한 탐구와 경험에 기초하여 가열로인종제계획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착상도 하였다. 조종수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느라 새것에 대한 지향과 실천력이 강해진 성강로동계급의 그 정신이 오늘날도 곳곳이 이어지고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 후덥게 달아오른다.

조종실의 차창너머로 울췌울췌 울췌 울췌 하는 분파압연기의 모습이 보인다.

와-와- 소리를 내며 팽각수가 흐르고 여러차례 압연물을

주철이 쏟아진다. 아금공업발전의 명맥을 지켜낸 책임감을 자각하고 5월 17일 공장 주철체결직장의 일군들과 용해공들이 불보다 뜨거운 심장으로 쇠물을 끓이고있다. 이들은 지난 10월에 주철 생산을 전달보다 500t 더 높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주저하지 않고 한몸 가버려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이다. 높아진 생산실적에 다 이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

뜨거운 심장으로 끓이는 쇠물

5월 17일 공장 주체 철 직장에서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산소용융로의 소원정을 긴급히 보수해야 할 일이 제기되었다. 방금 쇠물을 쏟아낸 산소용융로는 불명이마냥 달아났다. 기술자게 돌아가는 최전로의 동음을 멈추지 않으면 로보수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것은 변함없이 있었다. 다급한 정황속에서 최사다리를 타고 번개같이 오르는 사령부였다.

수리작업반장 김철철동무와 수리공 강철성동무였다. 용융로가 내뿜는 열로 하여

이 산소용융로를 그득히 채웠다. 주철체결생산의 승격을 지켜 한몸을 서슴없이 내면 이들은 출장의 순간까지 지켜보고서야 자리를 떴다. 이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은 모두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다. 주철체결생산의 승격을 지켜가는 길에서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모두가 이런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다.

남이 갈수록 더워 뜨거워지는 주철체결생산의 열풍은 교배된 증산경쟁의 불길속에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이들은 최전로의 운영을 과학적으로 하고 앞뒤공정에 대한 맞춤형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다용공대의 생산정사화를 잘 밀반점해주고있다.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속에 얼마진 최방열교대작업반에서는 최고 4차의 주철체를 뽑아내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결사의 각오와 혁명적의리로 주철체결생산을 높여나가는 직장의 일군들과 용해공들의 미더운 일본새에 의해 주철체결은 오늘도 사름치며 끓고있다.

거세차게 흐르는 백방 눈부신 쇠물. 그것은 주철체결선자의 값높은 영예를 빛내어가는 성강로동계급의 총성의 흐름이다. 글 및 사진 현진보도반

**우리 교에 배우들 제14차 오교국제교에축전에서 최고상 쟁취**

관중들 격정적으로

제14차 오교국제교에축전에서 우리 교에배우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하북성에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 이번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도이쾰란드, 러시아, 메히코,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프랑스, 쿠바 등 18개 나라의 교에배우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의 체력교에 《남자 더 높이》에 축전최고상인 금사자상이, 체력교에 《철봉과 류동그네날기》에 은사자상이 수여되었다.

체력교에 《남자 더 높이》에 출현한 배우들은 높은 난도와 재치있는 기교 동작들로 공중무대를 황홀하게 장식함으로써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과 심사위원들, 관중들은 장내가 떠나갈듯 한 환호와 박수갈채로 공연성과를 축하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중국 하북성 문화청 부청장 리진화

이 교에창조에 관한 사상이다. 축전심사위원회 고문 퍼터 듀빈스키는 축전의 교에작품에 최고점수를 준 것은 응당할것이다. 축전의 교에는 찬 것으로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것을 널리 보급하려고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페인 국제교에축전 주최 겸 축전심사위원회 위원 유진 차를린은 축전은 세계공공교의 메를린을 쥐고있다. 그것은 교에배우들을 내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조국이 있기때문이라고 흥분된 마음을 피력하였다.

축전심사위원회 위원 줄리오 네블레 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축전의 교에작품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반영하고있다. 축전에서는 과학과 체육발전이 큰 힘을 넣고있다. 사람들은 공공교에라고 하면 축전을 먼저 생각할것이다. 공공교에서 폐권은 영원히 축전이 될것이다.

**전국과수부문 과학 기술 발표회 진행**

등에서 내놓은 130여건의 연구논문이 제출되었다. 참가자들은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대헌수업들의 열정과 애정을 깊이 빛내어갈 일념으로 과학연구와 생활활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 자료들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과일나무와 효능높은 농약, 능기재생산방법, 열매맛을 높일

수농장), 천연한노 분산제에 의한 병해충구제방법(평안도 수농장)을 비롯한 논문들이 큰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발표회는 뜻여하는 김정은원수의 승교한 뜻을 받들고 모든 참가자들이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는데서 의의는 계기로 되었다.

공력, 2,3년결합 등으로 독립기회를 마련하였다. 특집에 성공할 때마다 관공자들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관공자들의 열면 응원속에 진행된 너저, 남자농구경기에서는 조선 체육대학팀이 각각 이겼다. 【조선중앙통신】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일행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 이노키 간지와 일행이 평양국제체육학교를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적인 교사와 기숙사, 문화후생시설을 갖춘 체육학교가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곳을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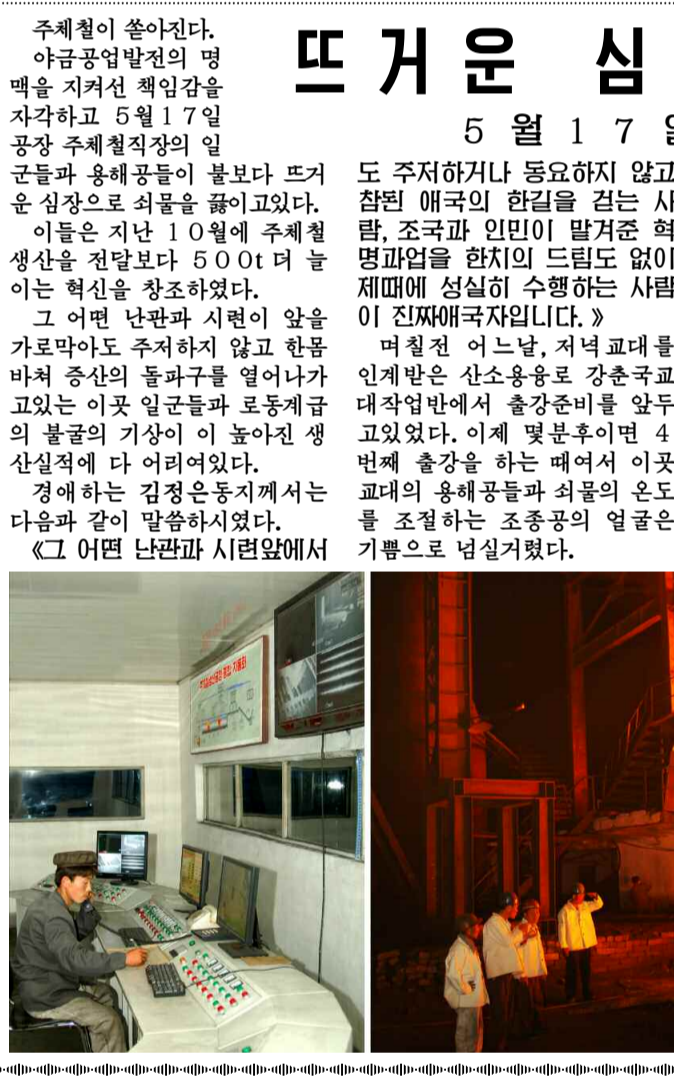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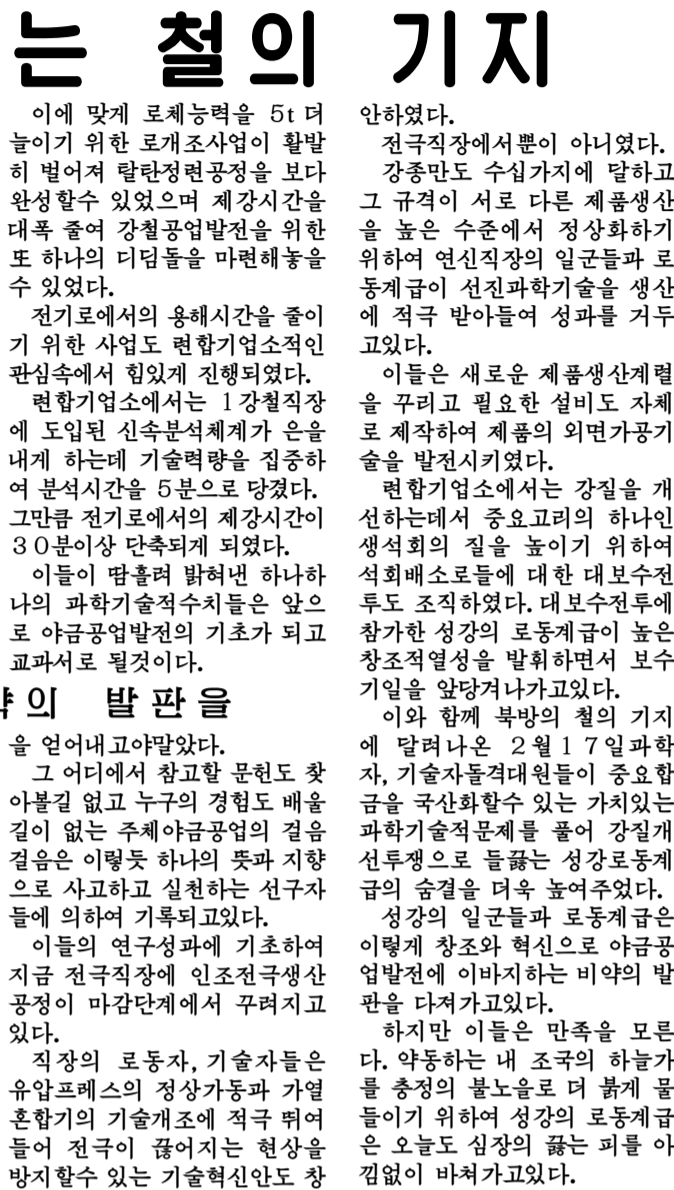
속에서 돌아보았다. 또한 그들은 기념비적 건축물로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류경구경병원, 육류, 유아병원 등을 참관하였다.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 일행 류경구경병원 참관

**조일 두 나라 체육대학 선수들 통구 경기 진행**

일본의 특장비영리활동법인 체육평화교류협회 이사장인 이노키 간지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과 일행, 마츠나미 겐시로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체육대학대표단 선원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조일 두 나라 체육대학 통구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공자들은 박수로 환영하였다. 이어서, 남자농구경기가 있었다. 두 나라 선수들은 팀의 진출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다양하고 짜인





# 진보적정당에 대한 탄압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성명, 담화 발표

베닌, 벨기에정당이 남조선 피폐당의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행위를 규탄하여 10월 28일과 2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베닌사회주의당은 합법적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남조선 보수파당의 강제해산행위는 전대미문의 파쇼적폭거라고 단죄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서 진보정당들이 범죄되어 탄압을 받고 강제해산소동까지 벌어지고있는것은 무엇일지 모르겠다.

그것은 오늘의 남조선이 정치자유와 권리가 완전히 말살된 정치무풍지대, 파쇼의 판무장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민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진보정당들이 남조선보수파당의 통합진보당해산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것을 호소한다.

벨기에 아공산주의자동맹은 최근 남조선에서 정의와 진리를 지지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 우습게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상원에는 아무아침하

면서 동족인 북파는 대결을 추구하는 남조선정당의 이러한 처사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남조선당자들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명시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을 거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남조선당국의 행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남조선당국이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진보정당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 \* \*

스위스, 프랑스단체들이 남조선 피폐보수파당의 진보정당에 대한 강제해산행위를 규탄하여 10월 28일과 3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재사상연수자들은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행위는 법적적인 파쇼적폭거이다.

오늘날 남조선의 피폐보수파당은 파쇼적인 《유신》독재를 되살리려 하고있다.

현실은 조선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인권유린행위들이 감행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 남조선보수세력의 범죄적인 파쇼적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조선의 통합진보당과 모든 진보적인 애국세력, 통일세력에 대한 현대성의 목소리를 높이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행위는 남조선보수파당의 통행위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프랑스반체제선전은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나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가장 보편적인 민주주의로 되고있으며 이를 거부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파쇼적행위라고 주장하고 남조선보수파당의 통합진보당탄압행위를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

로씨야, 나이지리아인민단체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 남조선피폐보수파당의 행동을 규탄하여 10월 2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는

최근 남조선에서 반민주주의적이고 모래내 세력에 의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한 일대 선봉이 불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합진보당이 《국가전복》을 시도했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연계시켜 해산소동을 벌리는것은 실로 황당한 짓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말할하려는 남조선보수세력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나이지리아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과 《새누리당》은 근대화주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해오던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나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만은 구시

대적인 악법들이 판을 치고있는 것으로 하여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경건》에 저항하는 정치적 반대파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커져가고있다.

그야말로 오늘의 남조선은 정치적자유도, 인간의 권리도 완전히 말살된 정치무풍지대, 파쇼의 판무장이자.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가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활동의 진정한 자유를 요구하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정의와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 용납 못할 파쇼적폭거로 란언한다.

\* \* \*

스르비아, 인도네시아정계 인사가 남조선피폐당의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소동을 규탄하여 10월 3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스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 바르르크 미요비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진보적정당, 단

체들에 대한 탄압을 그 어느때보다 더욱 악랄하게 벌리는것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반《경부》여론을 무마시켜 저들의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남조선당국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념원에 배치되는 온갖 행위들을 당장 중지하고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장면인 10.4선언을 리행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유신》독재의 부활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진보애국세력들의 투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엄에 현대성을 보인다.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부 사티아 총서기 하만드 싱은 통합진보당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연계시켜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책동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한 도발행위라고 까발리고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북남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온갖 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영국 단체 체 남조선당국자의 영국행각을 반대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도부가 남조선당국자의 영국행각을 반대하여 최근 성명을 발표하였다.

박근혜는 미국과 《맞춤형경제 전략》이라는것을 짜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타격을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다.

박근혜가 집권하자마자 남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연습이 그렇게없이 계속 벌어지고있으며 지어 미국의 핵전략폭격기가 지어 조선반도상공에 날아오고 있다.

우리는 영국의 진보적인민들이 박근혜의 영국행각을 반대하며 남조선파쇼당국을 타도할것을 호소한다.

# 전교조 말살조치철폐를 요구

피폐당의 부당한 처사로 해고된 전교조소속 로조원들이 10월 3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파쇼적독압조치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해고시킨 교원들은 학교들에서 부정부패를 반대하고 민주화실현을 위해 투쟁한 전교조성원들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교조말살조치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교사로동부, 교육부장관들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당국자가 위신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남 《정상회담》발언을 한것과 관련하여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박근혜의 해외행각을 앞두고 위신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남 《정상회담》을 용의 표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인터뷰내용이 보도되자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앞을 다투어 《대북정책변화기류》니 뭐니 하며 벽적 떠들었다.

그러나 큰 파문을 일으키는데 당황한 청와대와 통일부를 비롯한 피폐당국자들은 황급히 나서서 박근혜의 《정상회담》발언은 《원본적인 언급》일뿐 《대북정책변화》의 미하는것은 아니라고 하며 지금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았다고 꾸구 부장하는 놀음을 벌리었다.

박근혜도 다음날 다른 위신과 그 전에 가진 인터뷰에서 한 우려에 대한 도발적발언을 급히 공개하면서 자기의 《정상회담》발언을 통해로 뒤집어엮었다.

일반문제도 아닌 《정상회담》문제를 당국자로서 명백히 언급한것을 아예장외에 흘려버려서 전변부정하고 당국자 또한 자기가 한 말을 하루마침내 뒤집어

있는 해피한 추태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된 박근혜《정권》의 내부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편의 정치만화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는 이번에 말로는 《정상회담》을 운운하면서도 《북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을것》이니, 《좌파에서 벗어나야 한다》느니, 《북을 신뢰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과 지어는 그 무슨 《노비》이니, 《대가》니 하는대위의 험담들을 늘어놓았는데 이것은 그의 대결본능에서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의 《정상회담》발언은 심각한 대내정치적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궁여지책으로서 무엇이냐고 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박근혜가 말끝마다 내드는 《신뢰》요, 《진정성》이요 하는것이 반공파괴결의의 위장술이라하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나 그 무슨 《반도신뢰프로세스》의 정체가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미국이 청와대안방까지 도청하며 염통까지 뺏아내도 바르발 한마디 시원히 하지 못하는 현 남조선당국이 과연 우리와 무슨 문제를 신뢰성있게 협의해갈수 있었는가 하는것도 문제이다.

# 큰 결심으로 올해 사업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하여 마지막박차를 가하자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가 지난 《조선신보》가 10월 30일 본설 《큰결심으로 올해사업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하여 마지막박차를 가하자》를 게재하였다.

본설은 조국과 더불어 총련에 있어서 올해는 첫걸음부터 튼튼하고 격격적이며 승연한 해였다 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와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정장예 모내신 새해축전을 통해 올해 총련이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시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술 60년 경축행사에 수많은 총련인민들과 새 세대 청년들, 애국적동포들을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쁨사건까지 켜어주시는 사랑과 배려를 우리에게 무한한 긍지와 억울없는 신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장전 65년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신 주제 102(2013)년 9월 7일은 제일조선인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하였다.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이 뜻깊은 올해에 위하여 대단원수님들

의 유훈을 가슴에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심으로 받들어 동포사는 곳곳에서 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도교의 《민중교육고수발전, 문화활성화도모임창조운동》, 오사까의 《문화강화, 학생언어확대 한마음운동》, 후쿠오카의 《단국들과, 새 전성기개척총력전》 등 각지의 일군들과 열성자들이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 지역적특색에 맞게 대중운동을 기세드높이 전개하였다.

정치, 경제형편이 엄혹한 속에서도 일군들과 동포들은 우리 학교를 지키고 더 발전시키자고 맹렬히 나서서 지난해에 나시도교 조선전2초급학교 세 교사를 준공하는데 이어서 올해 교도조선초급 학교 세 교사를 일떠세웠으며 며칠후에는 도교조선전1초급학교의 세 교사가 완공되게 되고 도교조선전6초급학교도 세 교사건설에 착공하였다.

사이타마현청상회의 《우리 민족목표》는 대담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제일동포의 10%이상이 참가한 《1 000명대항상 동포사회의 《만풍년》》을 훌륭히 성공시켰다.

얼마전에는 교도조선전1초급

학교주변에서 민족적자본업으로 집요하고 지독한 탄압을 감행한 우익반동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본설은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은 필승의 신념을 안고 일본당국의 민족차별에 계속 일군들의 민족적투쟁을 계속 진행시켜 투쟁으로 맞서 응당 누러야 할 권리를 쟁취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올해사업을 자랑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남은 60일의 하루하루를 달고나도 순간의 멈춤도 없이 강도높은 정치사업, 조직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본설은 본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성, 총련과 제일동포들에게 들려주시는 사랑과 배려에 대한 신적경양사상을 보다 심도있고 광범히 펴리자.

전체 일군들과 열성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을 각계각층의 동포들에게 널리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계속 정력적으로 벌려나갈것이다.

둘째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지부일군대위에 축전을 보내주신 1년에 즈음하여 다진 결의를 어김없이 집행하며 새 전성기에 애국도모임창조운동을 활기있게 펴리자.

총련은 다음에 제23차 전체회의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전체 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제일조선인민운동의 새 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서 역사적의의가 될것이라고 본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는 파쇼경찰들

# 남조선집권자의 사과를 요구하여 초불투명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경보된 정치공작 대안개입규범 비상시국회의》가 2일 서울에서 피폐당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를 규탄하는 초불투명회를 가졌다. 집회에는 1 000여명의 시민단체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정보원과 공안비서사령부 등의 불법적인 개입행위가 편이여 폭로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권력기관들의 조직적선거개입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투쟁을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박근혜의 책임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 미국의 주권침해행위를 단죄

만나대통령 대변인이 최근 한 회견에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최근 오스트랄리아신문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미국이 아시아 나라들에 있는 자기 대사관, 영사관들을 통해 비밀정탐행위를 한데 대해 폭로한것과 관련

# 여러 나라 들 협조

— 벨라루스와 말레이시아가 1일 군사분야에서 협조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로씨야와 에파도르는 10월 29일 동남부에서 협조관계를 위한 2건의 협조문건들을 체결하였다.

문건들은 에파도르대통령의 로씨야방문과정에 조인되었다.

# 중국에서 도서 《과학적발전관학습요강》 발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최근 도서 《과학적발전관학습요강》을 출판하여 전국의 신화서점들에서 발행하였다.

도서는 과학적발전관의 역사적지위와 지도적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내용과 정신적본질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며 변함없이 중국의 현대화건설전과정에 철저히 관통시켜 당건설의 여러 측면에 구현할데 대하여 밝혔다.

# 심각한 물오염문제

파키스탄에서 물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전국적으로 수집한 물결본가운데서 80%이상이 마시편 위험한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카라치에서는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리용하고 있다.

또한 라호르에서 비료와 살충제, 공업폐기물로 인한 지하수오염으로 장리브스, 콜레라, 적리, 간염 등 온갖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물문제해결이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다.

# 독 우

쿠바의 빌라 클라라주에서 최근 폭우가 계속되고있다.

10월 25일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로 10월 28일현재 1 430여명의 주민들이 소개되었다. 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72시간동안에 125~327mm의 비가 내렸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 특대형반인륜적범죄는 반드시 결산되어야 한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면서 침략군과 경찰을 지어 현역군인들까지 끌어 조 선인성강제연행, 랍치행위를 대대적으로 벌렸다. 일본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거리와 마을, 산속까지 살상이 뒤지면서 여성이라면 그 소녀이건 처녀이건 유부녀이건 관계없이 마구 랍치, 강제연행하여 성노예로 만들었다. 이면이 아니었다. 일본은 처녀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많았으면 여성들을 끌다 성노예로 만드는 행위로 서슴없이 강행하였다. 만만전선에서 《련합군》에 의해 포로되던 일본인애촌업자는 빛문때문에 만만대에 끌려오는 조선인여성들만 하여도 8 0 0여명이나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성노예범죄행위는 일본반동들이 말하는것처럼 본인들의 《자원적요구》나 《의사》에 의한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감행된 국가범죄이다. 일본반동들이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는것은 일본특유의 비열성과 철면피성의 극지이다.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전모가 드러나는것을 몹시 두려워하고있다. 더구나 그 엄중성때문에 배상문제때문에 매우 바빠하고 있다.

현 일본당국자들속에서는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강제성을 증명하는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부족하다느니, 역사학자들나 논할 학술상의 문제라느니 뭐니

에가 더 많이 요구된다. 일본은 헌법과 경찰을 지어 현역군인들까지 끌어 조선인성강제연행, 랍치행위를 대대적으로 벌렸다. 일본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거리와 마을, 산속까지 살상이 뒤지면서 여성이라면 그 소녀이건 처녀이건 유부녀이건 관계없이 마구 랍치, 강제연행하여 성노예로 만들었다. 이면이 아니었다. 일본은 처녀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많았으면 여성들을 끌다 성노예로 만드는 행위로 서슴없이 강행하였다. 만만전선에서 《련합군》에 의해 포로되던 일본인애촌업자는 빛문때문에 만만대에 끌려오는 조선인여성들만 하여도 8 0 0여명이나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성노예범죄행위는 일본반동들이 말하는것처럼 본인들의 《자원적요구》나 《의사》에 의한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감행된 국가범죄이다. 일본반동들이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는것은 일본특유의 비열성과 철면피성의 극지이다.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전모가 드러나는것을 몹시 두려워하고있다. 더구나 그 엄중성때문에 배상문제때문에 매우 바빠하고 있다.

현 일본당국자들속에서는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강제성을 증명하는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부족하다느니, 역사학자들나 논할 학술상의 문제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들이 섞여나오있다. 일본반동들이 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리면에는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회피하려는 속심도 깔려있다. 성노예범죄에 대해 충실하게 인정하고 사과, 배상하는것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역사적책임이며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그러나 일본은 성노예범죄를 집요하게 외곡하며 그 책임과 청산의무를 모면하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 있다.

과거 일본의 침략과 랍탈의 흔적이 어디나 력력하고 수많은 피해자들과 후손들이 역사의 증언자로 살아있는 오늘날 저들의 극악한 성노예범죄를 외곡해나서는 일본당국의 처사에 우리 민족이 아닌 세계가 분노해하고있다.

국제사회는 일본군국의 성노예문제를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유린행위들중의 하나로 단죄하고 일본정부가 그에 대한 역사적책임을 인정할것과 후대들에게 그러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알려줄것을 요구하고있다. 특대형반인륜적 죄악인 일본의 성노예범죄청산문제가 일본의 법적, 도덕적책임으로 되기때문이다.

일본반동들은 특목히 알아야 한다. 일본이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청산할데인것을 집요하게 회피한다면 국제사회의 더 큰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라 명 성